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계획 수립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전주시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하는 등 5대 신성장동력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勾勒해 드러냈다.

시는 17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세미나실에서 박순종 전주시 부시장과 오정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 신성장산업 발전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미래먹거리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정부의 R&D중장기 투자전략과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19대 분야),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지역 역량과 잠재력, 차별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드론과 3D프린팅,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VR/AR, 신재생에너지 등 향후 전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5대 신성장 미래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드론분야에서는 3D프린팅과

탄소소재를 활용해 드론 부품의 경량화와 배터리 수명 연장을 이뤄내 지능형 농업용 드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세계 최초로 전주에서 개발된 드론축구 활성화와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특화하기 위해 드론 테마파크(체험관)도 조성할 예정이다.

3D프린팅 분야의 경우, 시는 인쇄전자센터와의 기술교류를 통해 3D프린팅의 기술력을 높이고,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 각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3D프린팅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스마트 파킹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교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시에, 고령화 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실버 헬스케어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AR/VR분야에서는 한옥마을 및 전통시장, 전통공연 등 전주 문화시설과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문화·관광 체험산업을



시는 17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세미나실에서 박순종 전주시 부시장과 오정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 신성장산업 발전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미래먹거리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육성하고,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AR/VR 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특화산업인 탄소 인프라 및 개발소재를 활용한 이차전지 제작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적극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오는 3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의 산업 환경 변화와 전주시 산업의 입지여건 및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전주시 신성장산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육성시책, 단기(5개년)·중장기(구체적 실행계획, 예산확보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경기전·체육시설 18개소 등 19곳 추가 등록

전주시가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천사시민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자원봉사증을 제시하고,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축적된 마일리지 지분을 차감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처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주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는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관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전주시 고유사업으로, 현재 총 55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마일리지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처로 추가 등록된 시설은 경기전(관람료)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관리하는 전주시 체육시설 18개소(이용료) 등 19곳이며, 전주시 행정기관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

19개 시설 이용 및 3종 제증명 발급 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처는 기존 전주동물원과 전주생태박물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18개소 등을 포함해 전주시 제증명 132종 수수료와 전주시 이용 시설 39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를 통해 자원봉사 1등 도시 전주의 자원봉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는 총 17만여 명으로, 사회 전반에 돌봄과 나눔, 봉사의 가치가 확산되면서 실제 자원봉사 참여인원과 자원봉사 활동 시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침도시락을 배달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혜의 반찬',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말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폐지수거 여르신들을 돕는 '희망 줍는 손수레' 등 전주시 각종 복지정책들이 시민들과 지역 기관·단체의 후원의 손길이 더해지며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이번 자원봉사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는 평소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 온 전주시의회 김진욱·박형배·백영규·서난이 의원이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 3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봉사자증은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v.kr)에 가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3개월 내에 자원봉사실적이 5회 또는 10시간인 봉사자에게 발급되며, 발급대상자들은 신분증과 증명사진 1장을 지참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영재 기자

회사 공금 횡령한 김주현 익산시의원 벌금형

김주현 익산시의원 벌금형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폐기물처리업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의회 김주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일 형사2단독(부장판사 허운)은 17일 김주현 의원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폐기물 매립시 일반토사와 1대1 비율로 폐기물을 매립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김주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처리 업체 사장 A씨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검찰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공소장을 작성했으나 피고인들은 폐기물 불법 매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해 매립했다며 공소장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영외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같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 구축

6월부터 시행 계획... 365일 24시간 조회 납부 가능

전주시가 시민 편의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화 한통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부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주시는 집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365일 24시간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화기기(ATM)와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납부방법의 경우 회원가입과 공인인증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한 관계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장년·노인층 납부자들이 이용하는데 부담을 느껴왔다.

이에 시는 인터넷 접속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ARS납부 시스템을 도입해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가 구축되면, 납세자는 전화를 걸어 주민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 등을 알 수 있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나 30만원 미만 휴대용 소액결제 방법 중 선택해 납부하면 실시간 수납 처리된다. 납부 후에는 갈래확인 문자도 통보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5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는 ARS납부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김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퇴임

김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3대 이사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한다.



수와 함께 신규시설의 안정적 수탁으로 공단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했다.

또 소외계층 체육시설 무료관람 및 현장체험 학습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사랑나눔 쌀·연탄 배달봉사,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도 펼쳐왔다.

또한 행사부 조사 고객만족도 부문에서 전북지역 공기업 가운데 8년 연속 1위를 차지해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김신 이사장은 "공익성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시민의 삶 터전 가까이에서 행복으로 가는 동반자가 되기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방문 교육 오리엔테이션

전주시가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17일 센터 교육실에서 방문교육 지원대상 가족, 방문교육 지도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방문교육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방문 교육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을 대상으로 19명의 전문가를 갖춘 방문지도사들이 직접 찾아가 맞춤형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입국 5년 이내 초기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제공 되는 한국어교육 △만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는 부모교육 △만3세 이상~만12세 이하 자녀에게 제공되는 자녀 생활교육 등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